

# 글을 다듬고 가꾸는 일

이오덕

아동문학가

신문사나 잡지사, 또는 단권책을 내는 출판사 등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분들은 흔히 남의 글을 고친다. 그래서 글을 쓴 사람과 의견이 맞서는 수가 예사다. 글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글쓰기와 출판문화의 바탕을 다지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두고 아무런 원칙도 없이 편집을 하는 사람마다 달리 하여온 것이 아닌가 싶어 여기서 글 다듬기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신문이나 책을 만드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의 글도 거의 모두 원고 그대로는 실을 수가 없다고 한다. 우선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규정대로 지킨 원고가 없고 틀린 글자, 틀린 말, 문법에 맞지 않는 글, 사실을 잘못 알고 쓴 내용, 단락이 잘못되고, 글의 길이가 안 맞고...이래서 손을 대지 않고는 도무지 실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원고 그대로 내어서는 책이고 신문이고 단 한권, 단 한장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편집자들의 말은 사실이고,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따위를 편집부 방침대로 고치는 것은 문제삼지 않겠다. 그런데 어째서 문장을 제멋대로 요리하는가? 또 한자를 고쳐도 아주 딱 글이 되는 수가 흔한데, 남의 글을 마구 꺾고 뜯어 고치고 하니 이런 횡포가 어디 있는가?"

사실은 나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수없이 많이 당했다. 책을 만드는 쪽의 말도 이치가 있어 이해는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을 고치고 싶어하는 쪽에 더 큰 잘못이 있고, 잘못의 근원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좀 말하려 한다.

맞춤법이고 띄어쓰기고 글점 같은 것을 바로잡는 것은 좋은데, 내가 알기로 편집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원고를 뜯어고치는 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남의 글을 고치는 노릇을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권리로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원고가 흠 없이 써져 있어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내게 되면 편집자로서 권위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글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의 글을 고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온전치 못한 그대로 두어야 한다.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 가진 말 버릇이 있고 글 버릇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남의 버릇을 모조리 자기 버릇대로 고치려 한다면 어찌되겠는가? 내가 보기로 편집부 직원들이 원고를 뜯어고치는 경우 가령 10군데 고쳤다고 하면 5군데는 잘못 고치고 3군데는 안 고쳐도 될 곳을 고쳐 놓고 나머지 2군데쯤 겨우 바로 고친 것이다. 대체로 그렇다. 10군데 중에서 옳게 고친 것이 5군데밖에 안된다면 차라리 일체 손을 안 대는 것이 좋겠는데, 한두 군데밖에 바로 고친 것이 없다면 이런 글 고치기가 얼마나 큰 해독을 끼치겠는가?

글을 잘못 썼다면 어디까지나 쓴 사람이 책임질 일이다. 쓴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읽도록 하여 비판을 받게 할 일이고 그래야 글을 쓰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린다.

다만 한 가지 편집부에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쉬운 말이 있는데도 공연히 어려운 한자말을 썼거나, 우리 말이 아닌 남의 나라 말이나 말법으로 쓴 것이다. 우리 말을 지키고 가꾸는 크나큰 일에 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앞장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해 본다.

뉴스	2	이 가을엔 이 한권의 책과 함께 · 외
표지	4	우리말과 글 연구의 든든한 중심기둥 발족 열달째 맞는 국립국어연구원 안병희원장
특집	6	남북언어 이질화 실태와 극복방안 - 최호철 무엇이 다르며 어떻게 합쳐야 하나
	8	'컴퓨터한글' 무엇이 문제인가 - 이기성 한글표준코드 제정 잘못돼 불편과 폐해 심각
	10	한글특수사전, 어떤 것들 나와있나 최근들어 점차 활기...개인작업으로는 한계
	12	근대국어학 체계 세운 선구자 - 박영환 한헌샘 주시경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
소식	13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새로 나온다
서평	14	이병수 외 「철학의 철학사적 이해」 - 이봉재 다이슨 「무한한 다양성을 위하여」 - 이호연
	15	실크 「대폭발」 - 현정준 백경남 「독일, 분단에서 통일까지」 - 이영기
	16	황패강 「한국문학의 이해」 - 조동일 김문수 「서울이 좋지만」 - 신철하
작가인터뷰	17	“대가보다는 끝까지 현역이고 싶다” 「저문날의 삽화」 펄낸 박완서씨
리포트	20	독자가 뽑은 베스트시인
	21	북한에서 일본도서전 열린다
이 책 그사람	22	「편집디자인 실무분석」 낸 김두식씨 「기호학」 펄낸 소두영교수
	23	「교통부장관 귀하」 낸 임삼진씨 「향산 종이에선...」 낸 원종성씨
화제의 책	24	서연호 지음 「한국의 탈놀이」
화제의 인물	25	한국문학의 일본소개 힘쓰는 안우식씨
해외출판	26	문학의 국경 허문 비저출판사 · 외 - 이희재
세계의 책	28	무용사에 우뚝 선 한 춤꾼의 삶 · 외
	30	실용도서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 / 재미있는 책이야기 / 정기구독 안내